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채진영(서울대 언어교육원 외국어센터 전임강사)

I. 서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문제 공유와 가사분담 등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양육참여의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는 안정적인 관계를 위한 아버지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어린 시절 경험한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이후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Bretherton, et al., 1990). 또한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의 경로모형을 제시하며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 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결혼 만족도 역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참여의 기회를 조절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행동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gatekeeping)’라고 하는데(Allen & Hawkins, 1999),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아버지가 여아보다 남아와의 관계에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견해(Schoppe-Sullivan, Diener, Mangelsdorf, Brown, McHale, & Frosch, 2006)와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엄격하게 대한다는 견해(Farver & Wimbarti, 1995)가 있다. 자녀의 성별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하고자 아버지의 자신 관련 변인(아동기 애착 경험)과 배우자 변인(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및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는 남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업축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태도, 친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는 여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업축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태도, 친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임의선정한 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의 남아 85명, 여아 75명의 아버지 160명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절반 이상이 가정 내에서 첫째(57.5%)였고, 조사대상의 73.1%가 맞벌이 가정이었다. 아버지의 절반 이상이 36-40세였고(53.1%), 75.6%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ease 등(1979)이 개발한 아이오와 부모행동 측정 목록 중 아버지용(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 IPBI: FF)을 노현미 등(199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업축진 7문항, 제한 설정 8문항, 반응성 7문항, 합리적인 지도 9문항, 친밀성 3문항 등 5개 하위영역에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고, 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83, .66, .78, .85,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아버지가 아동기 때 경험한 원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Hazan와 Shaver(1992)이 개발한 성인 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번안한 곽소현(2005)의 질문지 중 의미가 겹치는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15문항의 성인 애착 척도를 사용하여 원아버지와의 애착 관계와 원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원래 7점 척도 리커트 척도인 것을 이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바꾸어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신뢰도는 각각 .84이었다.

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Olsen 등(1982)이 개발하고 ENRICH(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하위 영역인 결혼만족도 척도를 고정자, 김갑숙(200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93이었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는 Fagan과 Barnett(2003)가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간섭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개발한 것을 아버지가 작성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9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89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이 산출되었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남아 아버지의 경우,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과업촉진과 친밀감에는 각각 결혼만족도, 원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한설정에는 원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결혼만족도의 순으로, 반응성에는 원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결혼만족도, 원아버지와의 애착 관계 순으로, 합리적 태도에는 결혼만족도, 원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원아버지와의 애착 관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 남아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과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2	ΔR^2	adj. R^2	F
과업촉진	결혼만족도	.21	.35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0	.30	.23	.09	.22	12.53***
제한설정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4	.29				
	결혼만족도	.11	.22	.15	.05	.38	7.20**
반응성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39	.41				
	결혼만족도	.15	.25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	.08	.10	.25	.06	.23	13.77***
합리적 태도	결혼만족도	.27	.33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1	.25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	.10	.12	.19	.06	.17	9.57***
친밀감	결혼만족도	.11	.36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09	.28	.23	.08	.21	12.39***

p<.01, *p<.001

여아 아버지의 경우, 제한설정과 친밀감에는 각각 결혼만족도와 원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과업촉진, 반응성, 합리적 태도에는 결혼만족도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여아 아버지가 아동기 때 경험한 원아버지와의 애착 관계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는 여아 아버지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아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과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 ²	ΔR^2	adj.R ²	F
과업촉진	결혼만족도			.06		.05	4.86*
제한설정	결혼만족도	.22	.32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18	.23	.18	.05	.15	7.62**
반응성	결혼만족도	.19	.34	.12		.11	9.80**
합리적 태도	결혼만족도	.17	.31	.10		.08	7.68**
친밀감	결혼만족도	.24	.47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14	.20	.22	.06	.21	20.65***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근래 질적인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며 다음과 같다. 남아 아버지의 양육행동에는 배우자인 어머니와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결혼만족도와 아동기 때 경험한 원아버지와의 애착 관계와 원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주로 영향을 주었고, 여아 아버지의 양육행동에는 결혼만족도와 아동기 때 경험한 원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차이가 있음을 있다. 자신과 같은 성별의 원아버지와의 아동기 때 애착 경험은 남아 아버지의 양육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전 세대의 부자간의 관계가 그 다음 세대의 부자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아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와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와 같은 성별인 여아와의 관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에 영향을 받지 않음이 확인됨으로써 아버지는 어머니의 간섭에 민감하지 않는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관련 변인들로부터 받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는 상관없이 배우자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족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정자, 김갑숙 (2000).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4.
- 곽소현 (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 문제군과 일반군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현미, 박인전, 박영애 (1999). 유아 및 가족 배경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 *한국가족복지학*, 4(2), 191-214.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99-21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etherton, I., &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s: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and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gan, J. & Barnett,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 Farver, A. M., & Wimbarti, S. (1995). Paternal participation in toddlers' pretend play. *Social development*, 4(1), 17-31.
- Hazan, C. & Shaver, P. R. (1992). Broken attachment. In Orbuch, T. L. (ed.), *Close Relationship Loss: Theoretical Approaches*, Springer-Verlag: New York.
- Jeon, H. J. (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Cornell University.
- Olson, D. H. & Barenes, H. (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Pease, D., Clack, S. G., & Crase, S. J. (1979).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토론

권 혜 진(나사렛대 아동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하고자 아버지의 자신 관련 변인(아동기 애착 경험)과 배우자 변인(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아버지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아동기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아버지와의 애착경험, 결혼 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행동이 남아와 여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업추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태도, 친밀감)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연구문제의 설정에 따라 연구자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아버지역할 및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앞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을까’하는 점이 궁금하였다. 과업추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태도, 친밀감과 같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해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와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와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구자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지만,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자녀성별과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결혼만족도가 추출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차이에 대한 강조에 앞서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결혼만족도’변인이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자는 여아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와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와 같은 성별인 여아와의 관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좀 더 주의깊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남아와 여아의 아버지

모두 결혼만족도는 주요 영향변인이었으며, 남아의 아버지와 달리 여아의 아버지가 원부모와의 애착경험 변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받았던 아버지 노릇의 장점을 모방하여 현재의 자녀양육을 하게 되는데(Jain, Belsky & Crnic, 1996), 아들에 대한 아버지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딸에 대한 아버지 역할을 모델링할 만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제시될 수 있다. 아버지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홍길희, 황정혜, 2006)에 따르면 딸을 가진 아버지들의 교육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성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더 느끼고 해석될 수 있어서 이 연구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에 영향을 받지 않음이 확인됨으로써 아버지는 어머니의 간섭에 민감하지 않는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이 역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이 영유아기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 자체가 의미가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관리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재함으로써 아버지의 역할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 부재 시에도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부-자녀관계를 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돌봄이 중요한 영유아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가 적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홍길희, 황정혜(2006).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7(3),301-317.

Jain, A, Belsky, J. & K. Crnic (1996). Beyond fathering behaviors : Types of da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31-442